

광주 경유 가격, 휘발유 추월...“서민 경제 압박”

중동 전쟁 후폭풍 불안에 국제유가 급등 영향 시민 체감 물가·산업계 연료비 부담 가중 우려 정부, 범부처석유시장점검반 구성 ‘대책 마련’

광주지역 주유소에서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서는 이른바 ‘가격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통상 경유는 휘발유보다 세금 구조와 수요 특성 때문에 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 국제 유가 상승과 수급 불안이 겹치면서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물류·농업 등 지역 산업 전반에도 경제적 불확실성이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광주

지역 내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경유 평균 가격은 1ℓ당 1882원으로 전날보다 8원이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휘발유의 경우 1ℓ당 1869원으로 전날보다 약 6원 올라 경유보다는 소폭 상승세를 보였다. 광주 지역의 경우 최근 한 달 사이 휘발유 가격은 약 170원가량 상승한 반면, 경유는 290원 이상 오르며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특히, 일부 주유소에서는 경유 가격이 휘발유보다 20~30원가량 높은 가격에 판매되는 등 가격 역전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날 오전 찾은 광주 북구의 한 주유소

주유기를 잡은 시민들은 가격표를 한 번 더 확인하며 고개를 가웃거렸다. 경유 차량을 운전하는 김석형씨(43)는 “원래 경유가 휘발유보다 싸다고 생각하고 디젤차를 샀는데 이제는 가격이 비슷하거나 더 비싸다”며 “중동 사태 이후로 기름 값이 더 올랐는데 앞으로는 더 오를 것 같다는 얘기가 많아서 요즘은 절반 남아도 미리 주유하는 편이다”고 말했다. 화물차 운전자들의 부담은 더 크다. 광주에서 여수까지 화물차를 왕복 운행하는 황수현씨(41)는 “경유값이 오르면 바로 수입이 줄어드는 구조”라며 “운송 단가가 바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라서 기사들 입장에서는 버티기가 쉽지 않다. 최근 몇 달 사이 경유값이 계속 오르면서 주변 기사들도 기름값 걱정이 많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번 기름값 급등의 가장 큰 배경은 중

동 정세 불안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지역 긴장이 높아지면서 세계 원유 공급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커졌다. 이에 따라 두바이유 등 국제 유가가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하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됐다. 통상 국제 유가 변동은 약 2~3주 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는 만큼 최근 상승분이 앞으로 추가 반영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경유 가격 상승 폭이 더 크게 나타난 데에는 연료 수요 구조 차이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휘발유가 주로 승용차 연료로 사용되는 반면 경유는 화물차와 버스, 건설장비, 농기계, 선박 등 산업과 물류 분야 전반에서 폭넓게 사용된다. 화물 운송 차량 등 영업용 차량은 연료 가격이 상승해도 운행을 줄이기 어려워 수요 탄력성이 낮기 때문에 유가 상승기에는 경

유 가격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또, 국제 시장에서는 경유가 휘발유보다 고가에 형성되는 점도 상승 원인으로 작용했다. 원유를 정제할 때 휘발유는 30~140도에서, 경유는 250~350도 구간에서 추출된다.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만들 수 있다 보니 휘발유의 정제 난이도가 더 낮은 편이기 때문에 글로벌 수급 불안이 발생하면 휘발유보다 경유 가격이 더 민감하게 움직인다. 이 같은 경유 가격 상승은 물류와 농업 분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지며 경제에도 부담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화물차와 택배 차량 등 물류 산업의 주요 연료로 경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면 운송비와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데다가, 이는 농산물과 생활 소비재 가격 등 전반적인 생활 물가 상승 압력 등으

로 연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중동 정세가 장기화될 경우 국제 유가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세도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나타난 경유 가격의 휘발유 역전 현상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일정 기간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일부 석유류 가격의 과도한 인상으로 시장 교란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재정부·산업부·공정위·국세청·지방정부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석유시장점검반을 운영하고, 정유사·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등 유통 단계를 특별점검하고, 불법 석유유통 위험군 주유소에 대한 특별회검사를 벌이고 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강기정 광주시장(가운데)이 최근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을 방문해 노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광주전남통합 특별법’ 국회 통과와 관련해 한담을 나누는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강기정 시장-금호타이어 노사, 상생 협력 ‘맞손’

곡성공장 식당서 간담회...지역 현안·건의 사항 청취

금호타이어는 최근 강기정 광주시장에게 곡성공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지역 경제 현안 및 기업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 통과에 따른 지역 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지역 대표 기업인 금호타이어 임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간담회에는 금호타이어 노조가 함께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다. 광주에서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손두영 인공지능산업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금호타이어에서는 황호길 안전생산혁신본부장, 윤선민 곡성공장장, 김옥주 커뮤니

케이션 담당 상무, 노동조합 간부들이 자리를 했다. 황호길 본부장은 “바쁜 시장 업무 중에도 현장을 찾아주시는 강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며 “특히 최근 시장님의 주도로 통과된 ‘전남광주특별법’은 지역 발전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며, 작년 공장 화재 수습 과정에서 보여주시는 전폭적인 지원에 대해서도 전 임직원을 대표해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황 본부장은 이어 “지역사회의 성원에 힘입어 최근 광주공장이 일일 생산량 1만분을 돌파하며 경영 안정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이에 멈추지 않고 2028년 가동을 목표로 합평공장 건립에 박차를 가해

지역 경제 기여와 고용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미래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인 광주공장 부지 매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광주시의 지속적인 행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강기정 시장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부지 판매를 위해 행정적인 지원은 법을 넘어서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먼저 매입자가 나와야 하는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입자가 나와서 개발 계획을 제출하면 광주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며 “금호타이어의 생산 정상화를 통해 고용안정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공정위, ‘국민 생활필수품’ 불공정행위 철폐

밀가루·설탕 이어 전분당 업계 가격 담합 정조준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날이 식품 물가를 뒤흔드는 업계 전반으로 향하고 있다. 최근 공정위는 설탕, 밀가루에 이어 전분당까지 ‘국민 생활필수품’ 가격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철폐를 이어가고 있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전분당 담합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4개 전분당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에게 송부했다. 또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 대상기업은 CJ제일제당, 대상, 삼양사, 사조CPK 등 4개 전분당 제조 및 판매사업

자다. 공정위는 앞서 3개 제당사의 설탕 담합 사건 조사과정에서 전분당 관련 합의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심사관은 이들이 지난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7년 6개월에 걸쳐 반복적·조직적으로 전분당 판매가격 담합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담합행위로 인한 매출액은 6조 20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해당 4개 업체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 및 물량배분 담

합을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가격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 조치, 과징금 부과 및 관리자(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담합 행위가 최종 판단되면 과징금 규모는 약 1조2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 더불어 공정위는 전분당 가격담합 행위 외에 일부 필수요체에 대한 입찰담합 행위와 전분당 부산물 가격 담합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조속히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생에 부담을 유발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시, 엄중한 제재, 신속한 가격 정상화가 이뤄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고 전했다. 윤은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주유소협회 “유류 가격 폭리 논란 사실 아냐”

“정유사 공급가격 급등에 따른 판매가격 인상” 주장

최근 유류 가격 급등과 관련해 일부에서 제기된 ‘주유소 폭리’ 논란에 대해 주유소 업계가 반박에 나섰다. 한국주유소협회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가격 상승의 1차 요인은 정유사의 공급가격 인상이며 주유소는 이를 반영

하는 소매 유통업 구조다”고 밝혔다. 국제유가와 석유제품 가격, 환율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정유사 공급가격이 급격히 인상됐고, 때문에 주유소 판매가격이 오른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주유소가 정유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가격은 거래 조건과

물량, 물류비, 계약 구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제고 보수 시점에 따라 원가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 측은 “판매가격 변동은 ‘폭리’로 규정하기보다 정유사 공급가격 인상 등 유통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관계를 판단해달라”며 “석유제품 가격의 대부분은 유류세가 차지하고 있으며 정유사 공급가격을 제외하면 주유소 유통비용 비중은 전체 가격의 4~6% 수준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윤은성 기자 yo1404@

제22회 영산강 사랑 사·도민

*** 제10회 나누사랑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

한마음 걸기대회

2026. 3. 28. 토 09:00~13:00

다양한 경품지급
참가자 명운권 추첨

‘영산강 환경정화 캠페인’ 참가학생에게
-> 지원봉사(1365) 2시간 인정

행사장소: 빛가람 호수공원 (전남 나주시 호수로 77)

참가대상: 남녀노소 누구나(참가비 없음)

접수기간: 2026년 2월 20일(금) ~ 3월 25일(수)

접수방법: 광남일보 홈페이지 배너 및 팝업창 (www.gwangnam.co.kr)

문의: 광남일보 사법국 T. 062)370-7090
※ 후원시간에 따라 변동합니다.
※ 취지 달성을 위하여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최·주관: **광남일보** **드림투데이** **나시광남문화재단** **건국대학교**

후원(여의): **나주시** **나주시립중앙도서관**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광주광역시의회** **전남도의회** **대한적십자사 광주광역시지부** **광주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